

도서관 이용자 공간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 이용자 공간의 변화를 모색하다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13:30~17:30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



주최 |



도서관 이용자 공간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 이용자 공간의 변화를 모색하다

2019. 03. 15.

세부 일정

사회 :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시간	내용
13:30~14:00	참가 등록
14:00~14:10	축사 -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임채진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 이태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회장)
14:10~15:00	발표 1 도서관 복합화와 특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착안
15:00~15:50	발표 2 도서관 공간의 해외 동향
15:50~16:00	휴식
16:00~16:50	발표 3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사례 및 고려사항
16:50~17:20	질의응답
17:20~17:30	마무리 및 기념품 증정

목차

발표 1

· · · · 09

도서관 복합화와 특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착안

박석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 건축학 박사

발표 2

· · · · 25

도서관 공간의 해외 동향

윤동식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부교수,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이사

발표 3

· · · · 35

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사례 및 고려사항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개관준비TF팀장

발표 1

도서관 복합화와 특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착안

박석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 건축학 박사

도서관 복합화와 특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착안

박 석 수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 건축학박사

목 차

들어가면서

[이야기 1]

책에 대한 기억, 경험의 공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이야기 2]

도서관을 위한 알쓸신잡

[이야기 3]

도서관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착안

- 자원 접근 위계의 재해석
- 귀한 것을 더욱 귀중하게
- 공간을 자원으로 책을 공간 자원으로
- 디지털 정보 접근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 사회적 이슈를 해소하는 역할
- 세렌디피티

나오면서

다시 처음으로! 참고는 하되 따라 하지는 않기

□ 들어가면서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에 대한 확인처럼 압축성장 시기 우리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기억은 새벽의 긴 줄과 늦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다. 이 부지런함과 불 꺼지지 않는 모습은 산업 현장에도 투영되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니 그때 우리 도서관은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이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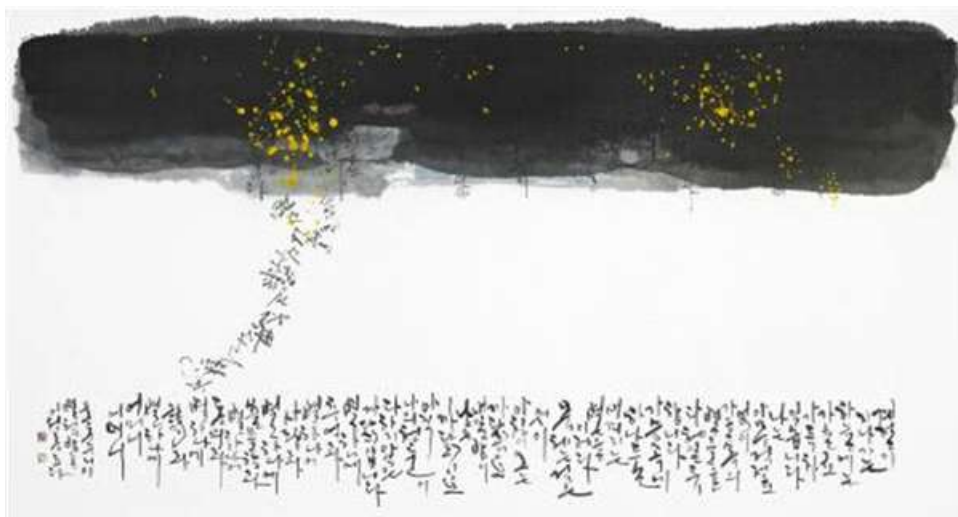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면서 다가온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한 나라의 미래를 여전히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 도서관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과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장서가 뿔뿔한 서가, 열심히 공부하는 열람실의 모습 만으로도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여긴다면 이는 고도 압축성장 시기에 축적된 경험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일꾼이 양성되어야 하는 시절의 도서관과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과도 경쟁 혹은 협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미래사회를 위한 도서관은 달라야 한다.

스튜어트 머레이의 저서 도서관의 탄생에서 소개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조선 4대 사고(史庫) 등도 역시 당시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교육하고 교육받고 생활을 공유하는 세대를 위한 도서관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갖춰야 함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림 1> 도서관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이미지 예시
이미지 출처 : 남산도서관이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윤동주 시 캘리그래피. ©서울시교육청

□ 이야기 1 - 책에 대한 기억, 경험의 공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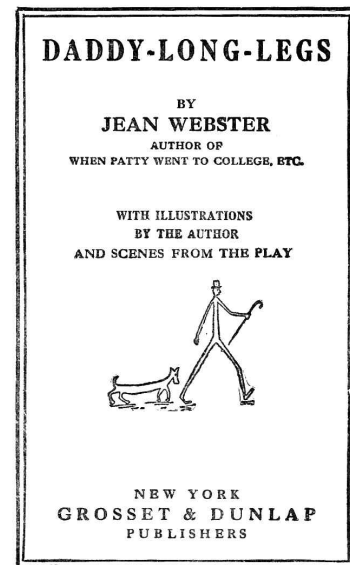
○ 책은 타임머신, 공감의 틀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 '주디'는 농장에서 저비스 도련님의 과거의 모습과 조우한다. 매개체는 '길 위에서'라는 책을 통해서다. 책의 표지에는 사내아이의 재미난 글씨체로 꼬물꼬물 이렇게 씌어있다. '이 책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따귀를 때려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책의 역할은 지식의 저장과 전달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는 것을 100년 전 소설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 '러브레터'에서 주인공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의 도서 대출 카드는 과거로의 여행의 출발점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도서관의 도서 대출 관리는 과거의 방식과는 달라졌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의 누적을 통한 공감과는 다소 거리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

한편, 정보와 지식의 습득 방식도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살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에게 과연 책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책이 과거의 박물관이 될 것인가?



Mad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림 2> 책은 타임머신, 공감머신
이미지 출처 : 영화 '러브레터' 캡처(좌), 위키피디아(우)

○ 출판 산업의 위기 속 서점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부상

아사히신문 2016년 2월 17일 자에 일본에서 신간 서적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놓고 출판사와 도서관이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일본에서 손꼽는 대형 출판사인 신초샤(新潮社)가 신간 판매가 저조한 책임을 도서관(특히, 신간의 대출)에 돌리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한국일보 2016. 2. 17일 자 기사 ‘책 안 팔리니...일본서 출판사·도서관 싸움 났다’ 참조 재구성)

그런가 하면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츠타야 서점’이 여행객의 방문지로도 손꼽히는 것을 통해 보면 오늘날의 ‘도서 소비자’는 책의 공간에서 책 외에도 다른 문화적인 것도 함께 획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해 오늘날 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단지 책의 제공에 머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림 3> 세종시 교보문고 바로드림센터 매장 모습

이미지 출처 : <http://www.kyobobook.co.kr/storen/MainStore.laf?SITE=24>



<그림 4> 충남도서관 ©박석수

○ 마을을 살린 서점과 작은 문화공간으로서 독립서점

서촌에 위치한 대오서점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대오서점에 추억이 있었던 많은 이들이 먹먹한 감정을 갖기도 했지만, 이제 대오서점은 북카페로 변환해 책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공간으로 성업 중이다. 동네 서점이 설 자리를 잃어가지만 최근 들어 책방의 주인이 스스로 ‘북 큐레이터’가 되어 만들어가고 있는 ‘독립서점’이 늘고 있다는 점은 책의 소비는 또 다른 문화적 코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작은 서점이 마을을 살려낸 사례로는 일본 교토의 케이분샤 이치조지점(惠文社 一乗寺店)이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 건물이 갖는 시간의 흔적을 살리면서 레트로한 분위기도 입히고, 모임이 가능한 공간과 카페를 갖추었다. 주차가 불편하지만 관광객들도 이를 개의치 않고 찾아간다. 매장에는 책과 디자인 소품이 함께 놓여있고, 분야별로 엄선된 책들이 있으니 작은 문화공간과 같다 하겠다.



<그림 5> 일본 교토 케이분샤 이치조지점 외관 부분 ©박석수



<그림 6> 청주 독립서점 '꿈꾸는 책방' ©박석수

○ 커피숍 공부방화 현상을 통해 살피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새로운 시선

한때 동네 커피숍 애증의 손님 1호는 커피 한 잔 시키고 노트북 켜고 긴 시간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손님들이었다. 총명한? 디지털 노마드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은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지만 1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젠 이런 1인 에너지 소비 손님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는 카페가 생겨나고 있으니, 디지털 노마드는 이젠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 이야기 2 - 도서관을 위한 알쓸신잡

○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

- ▽ 뜻의 확립 (흔히 필요성 및 배경이라고 말하는)
- ▽ 건립에 대한 구상 (다양한 논의 과정과 종합)
- ▽ 건립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성격, 규모, 조직, 예산, 일정의 확정)
- ▽ 설계지침의 확정
- ▽ 건축가 선정 (설계 공모, 전자입찰, 수의계약 등)
-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 ▽ 공사 입찰 안내서 및 시방서 확정
- ▽ 건설사 선정 (입찰, 턴키, 기술제안 등)
- ▽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
- ▽ 준공
- ▽ 개관

○ 리모델링 FAQ

- ▷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저렴하다?
- ▷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는 자세할수록 좋다.
- ▷ 리모델링 전 핵심 확인사항은?

○ 공사를 위한 조직

- ▷ TF의 조직과 전담 인력 확정 (사서, 시설직, 행정 지원)
- ▷ 조달청의 활용 (맞춤형 서비스 등)

○ 건축가의 궁금증

- 면적 : 총면적, 영역별 면적, 세부 실별 면적
- 기능 : 영역별/실별 기능, 영역별/실별 이용자와 행태 특성, 이벤트가 있는지?
- 천장 높이 : 공간의 쓰임에 따라 천장 높이는 어떻게 달리해도 되는가?
- 실의 가로세로 크기 : 각 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가로세로 크기
- 실별 연관성 : 인접해야 하는 실, 떨어져야 하는 실
- 통로의 폭 : 물건이 이동하는 통로, 양방향 통행 통로, 좁아도 되는 통로
- 각 실의 기능과 필요한 장비 및 설비 : 전산실과 같은 애매한 명칭보다는 구체적 기능과 이에 따른 장비가 언급되는 것이 좋음
-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는가? 있다면 위치와 환경조건 등은 어떠해야 하는가?

- 설비 계통의 유의 사항
- 이동 공간 : 계단의 높이 폭, 엘리베이터(하중과 크기, 속도)
- 차량 : 방문객 주차, 직원 주차의 분리?, 지하주차장의 폭, 높이, 차량의 크기
- 서비스/지원실 : 영역/기능별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창고, 여유 공간 등
- 영역/실별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마감재, 조명, 전기장치 등이 있는지?
- 예산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는 있는지?
- 증축이나 확장을 고려해야 하는가?

○ 나쁜 도서관을 위한 10계명이 있다면?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고,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라는 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서관과 박물관은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좋은 박물관을 세우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어떤 건물이 나쁜 건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고, 나쁜 건물이 아니라면 좋은 곳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박물관 건립에서 경계하는 ‘나쁜 박물관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한다.

▷ 나쁜 박물관을 위한 10계명

- 가능한 가장 기묘한 건물 자재를 사용하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라.
 - 전시되어야 하는 소장품 같은 것들이 있는지 무시하라.
 - 관람객 같은 것들이 있는지 무시하라.
 - 직원 같은 것들이 있는지 무시하라.
 - 접근 불가능한 구석과 갈라진 틈을 “창고”에 할당하라.
 - 첫해에 가득 찰 데니 공간의 확대에 신경 쓰지 마라.
 - 소장품들이 배수관으로 둘러싸이다.
 -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중앙 기온 조절 시스템을 맹신하라.
 - 소장품들을 대중들이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도록 하라.
 - 박물관이 건축가에게 영광이 되는 건축적 기념비가 되도록 하라.
- * 출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전문가 초빙 세미나 자료집, 1996, 문화체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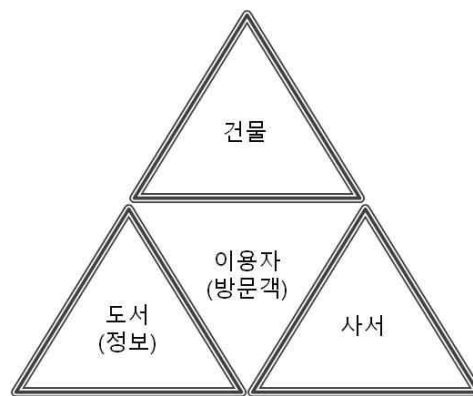
▷ 나쁜 도서관을 위한 10계명?

○ 도서관 구성 요소와 기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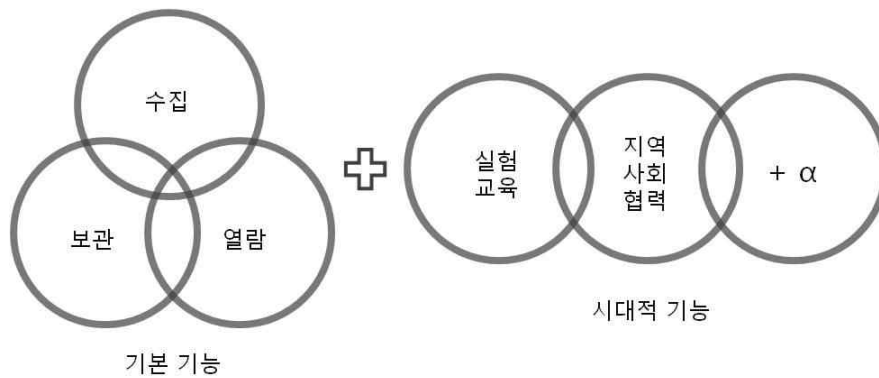
도서관의 3요소는 사서, 책, 건물이다. 사서가 없는 도서관?, 책이 없는 도서관? 건물 없는 도서관?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도서관의 성립이 어려워진다. 여

기서 문제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제 책이 없는 도서관도 상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디지털 출판이 무한 가능해진 사회의 변화 때문이다. 과거의 정보는 책으로 또는 지면에 정리되어야 남겨졌지만, 이제 웹이라는 가상의 생활공간에 얼마든지 책을 쌓아놓을 수 있다. 모든 개인의 일상이 콘텐츠가 되어 전자적으로 출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기본 기능이 수집, 보관, 열람이었다면, 이제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도서관 역할의 변화는 도서관 공간과 인력 구조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데, 특히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마련은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다.



<그림 7> 도서관 구성 요소



<그림 8> 현대 도서관의 기능

□ 이야기 3 - 도서관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착안

○ 자원 접근 위계의 재해석 : 내적 영역의 대중 공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대표할 만한 인류의 노력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로 대변될 수 있다. 최근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남에 따라 인류는 성간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도서관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에도 어찌면 대중의 호기심을 변수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한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박물관의 수장고 개방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의 수장고는 흔히들 ‘유물이 쉬는 곳’, ‘박물관의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여 왔으며, 이런 이유로 대중의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 엄밀하게 말하면 박물관의 직원도 유물 담당 직원의 동행이 없다면 박물관 수장고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공개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수장고를 공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장고의 공개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공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중의 바람에 의한 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박물관의 운영정책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잘 어우러지는 경우가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하면서, 국립미술관으로는 최초로 수장고를 대중에 개방한 사례가 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은 도서관의 공간 개발 방향 설정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개방형수장고 모습 ©박석수

○ 귀한 것을 더욱 귀중하게 : 라이브러리 뮤지엄으로 진화

도서관의 자원의 핵심은 ‘책’이다. 대중은 ‘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책을 보게 되지만, 책의 소중함을 느끼는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책은 공유되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사적인 소유물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의 귀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 책들이 오랜 세월 뒤에는 흔히 박물관의 진열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도 하다.

결국 도서관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도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 기능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도서관은 만들면서 박물관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에 도서관의 볼거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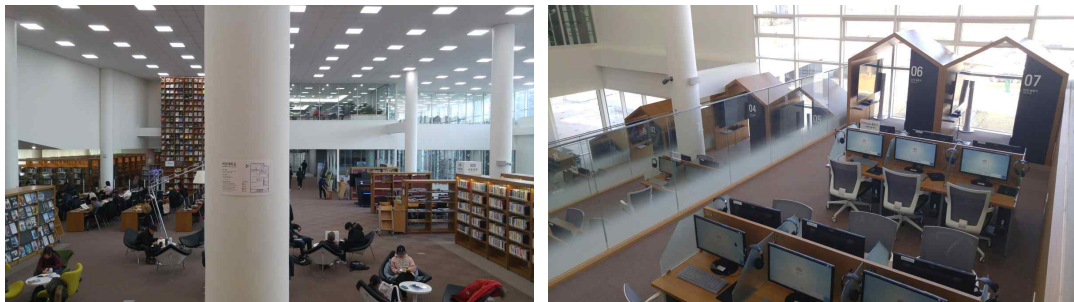


<그림 10> 카타르국립도서관 실내 전경(좌) 및 Heritage Collection (우)
 이미지 출처 : QNL General Brochure EN.pdf

○ 공간을 자원으로 책을 공간 자원으로

건축가들에게 공간은 소중한 작품의 구성 요소이다. 좋은 건축은 외관뿐만 아니라 매우 매력적인 공간 자체가 갖는 힘도 빼어나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로 좋은 작품도 아쉬운 작품도 만나게 된다.

국내 도서관 중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내 작품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작은 도서관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인 듯 보였다. 다행히 최근 지역대표 도서관의 위상을 갖는 충남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내부 공간에 대한 호응이 좋다. 책을 접하는 공간을 다양화하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머무르고 방문할 이유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충남도서관 3층 일반자료코너(좌) 및 3층 전자자료 공간(우) ©박석수

또한 최근 들어 책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멋진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아주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다가오긴 하지만, 사실 책은 언제나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의 요소였다.



<그림 12> 책가도(冊架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이미지 출처 :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261#>



<그림 13> 안젤리카 도서관

이미지 출처 : <http://www.bibliotecaangelica.beniculturali.it/>

과거 엄청난 장서가 모여 있는 서가가 도서관을 나타내는 힘이였다면, 이젠 책을 얼마나 아름답게 다루고 있는가가 도서관의 활력 에너지가 되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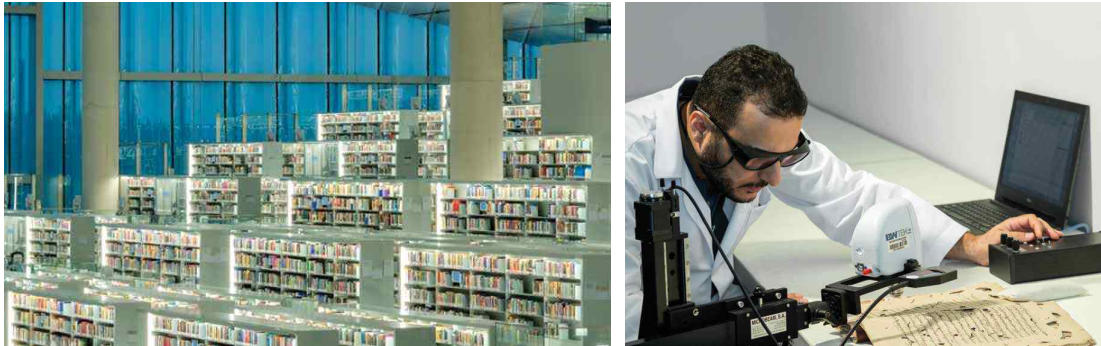
<그림 14>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2011년 개관)

이미지 출처 : <http://www1.stuttgart.de/stadtbibliothek/bvs/actions/profile/view.php?id=45>



<그림 15> 톈진 '빈하이 도서관' (2017년 개관)

이미지 출처 : http://www.bhwhzx.cn/index_t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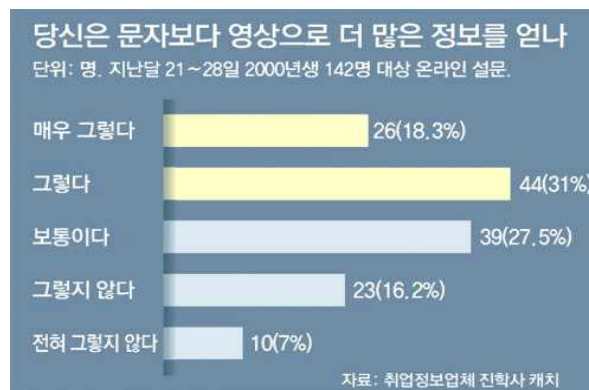


<그림 16> 카타르국립도서관 (2017년 개관)
 이미지 출처 : QNL General Brochure EN.pdf

○ 디지털 정보 접근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 디지털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폰연일체(Phone然一體)세대, 유튜브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바일 세대를 위한 도서관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시스템도 특별해야 한다. PC로 대표되는 키보드 단말 검색보다도 스마트폰 검색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책이나 신문 등 인쇄 매체의 장점이 많겠지만, 영상에 익숙한 세대는 인쇄를 통해 기록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 외에도 움직이는 영상으로부터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를 발견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림 17> 문자보다 영상으로 정보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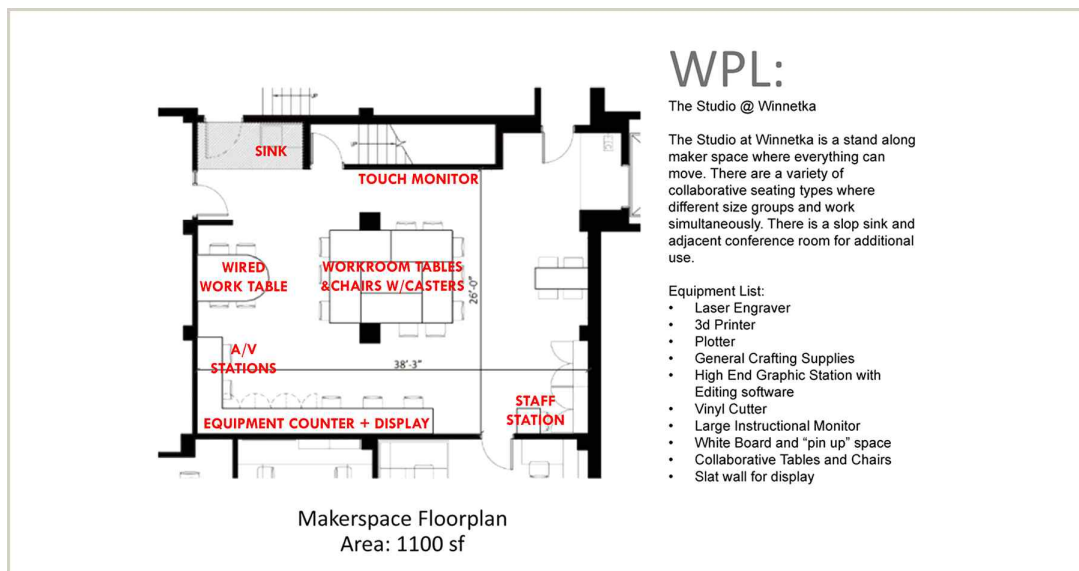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http://news.donqa.com/3/all/20190308/94442666/1>



<그림 18> 바이마르 괴테하우스 중 파우스트 전시코너 ©박석수

○ 사회적 이슈를 해소하는 역할 : 비어진 공간을 프로그램하기

과거의 도서관이 책의 수집과 보관, 열람을 기능의 중심에 놓았다면, 현대의 도서관은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기여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 확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 공간들이 도서관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공간이 메이커스페이스를 들 수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제 3차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되었으니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어진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19> 메이커 스페이스 평면도 예

이미지 출처 : <http://www.demcointeriors.com/blog/10-questions-help-plan-library-makerspace/>

○ 세렌디피티(serendipity) : 우연한 기회를 기획하기

공유 사무실로 알려진 위워크(WeWork)는 좁은 계단을 설치하면서 우연한 마주침을 디자인 콘셉트로 설명했다. 발상의 전환에 따라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이 재미가 될 수 있다.

도서관의 공간에서 우연한 만남을 만나는 방식은 사무실의 공간보다는 더욱 다양할 것이다. 그중 서가에서의 우연한 조우는 익숙한 영화의 한 장면인 남녀 주인공의 짧은 눈길의 스침과 머무름일 것이다. 이런 낭만이 책과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펼쳐질 수는 없을까?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책의 특징은 간단하다. 책등 하단부에 듀이십진분류법에 의한 관리용 스티커가 붙고, 책의 표지 하단부에 또다시 바코드 스티커가 붙여지고, 책의 뒷장 안쪽에는 RFID 칩이 포함된 스티커가 붙는다. 책의 남은 3면에는 도서관의 이름이 새겨진 고무도장이 찍힌다. 완벽하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책을 책의 이름으로 검색하기보다는 번호를 따라

가다 보니, 우연한 기회에 책을 만나게 되는 기회는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북 디자인의 관점에서든 도서관의 책은 불편한 디자인 샘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책은 이미 그 자체로도 완벽한 산업디자인 결과물인데 책 디자인의 핵심에 모두 스티커가 붙어있으니 말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나오면서 - 다시 처음으로! 참고는 하되 따라 하지는 않기

도서관의 복합화는 도서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다양화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요구의 유효기간을 살펴서 변화의 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혹시 잠시 잠깐 유행하는 현상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상설화와 팝업(pop-up) 화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특성화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모든 판단 요인의 변수로 지역주민을 최우선 검토하는 것이 출발이지 않을까?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 도서관으로 특성화의 방향을 설정한 것도 그 하나의 예인데, 현재 새로 건립될 세종시립도서관과 차별화의 방안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것 같다.

도서관 이용 측면에서 우선 일상생활권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방안을 설정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이 여행의 목적지나 경유지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동시에 고려된다면 어떨까?

특성화의 관건은 각각의 도서관이 위치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모습이 '다름'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알려진 멋진 공간, 팬시(fancy)한 서비스를 모두가 따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따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두 닮은 공간이 되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차별성이 사라지며, 마침내 매력을 잃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지금의 자원과 해결 가능한 노력의 범주에서 '다음'이 찾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차별화 혹은 특성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지나도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읽어보고 싶은, 책 그리고 정보가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은 다시 책의 오랜 역사적 기능과 가치와 매력에서 출발된 복합화와 특성화의 방향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발표 2

도서관 공간의 해외 동향

윤동식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부교수,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이사

일본 공공도서관의 최근 동향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

- 1950년 <도서관법>제정
무료도서관-폐쇄적, 열람중심, 교육의 중심
- 1963년 <중소도시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중소レポート
대출 중심으로 전환
- 1970년대 대출 중심, 개가형 서고확대 / 자료수집보존에서 이용 중시
- 1980년대 대출 중심, 개가형+AV자료의 다양화, 컴퓨터화 → 고기능 도서관
- 1990년대 대출 중심 /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관내 체재형
- 2000년대 전자미디어 /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성인 이용 증가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1963년

- ✓ <중소도시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운영> 중소 레포트
- ✓ 대출 중심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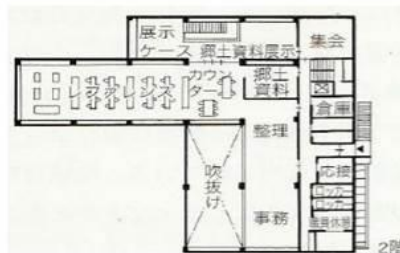
히노시 이동도서관 1965



히노시립 중앙도서관 1973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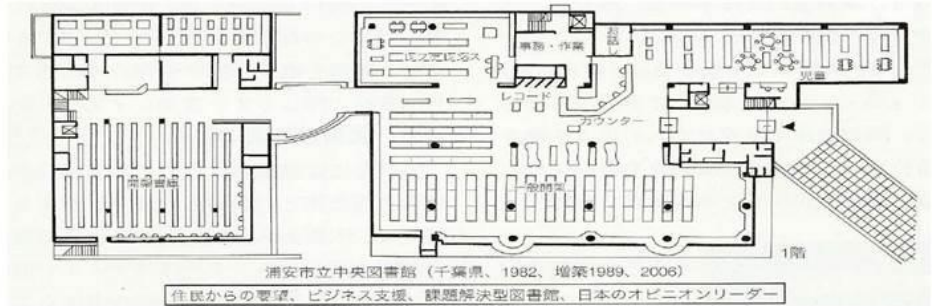
- ✓ 대출 중심 / 개가형 서고 확대
- ✓ 자료 수집 보존에서 이용 중시



히노시립 중앙도서관 1973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1980년대

- ✓ 대출 중심 / 개가형 서고 + AV자료의 다양화, 컴퓨터화
- ✓ 고기능 도서관



우라야스시립 중앙도서관
1989 개가서고동 증축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1990년대

- ✓ 대출중심
- ✓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관내 체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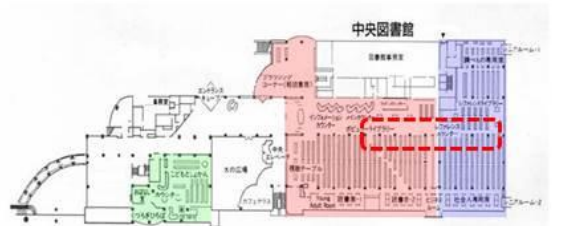
카리타초립중앙도서관 1990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

- 시설의 복합화
- 역세권 입지
- 전자화/자동화
- 다양한 디자인
- 다양한 서비스
- 민자위탁관리운영
- 야간개관



이치가와시 중앙도서관 1994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 시설의 복합화 ✓**
- 역세권 입지
- 전자화/자동화
- 다양한 디자인
- 다양한 서비스
- 민자위탁관리운영
- 야간개관



토와다시 교육플라자 2015
도서관 + 교육연수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시설의 복합화
역세권 입지 ✓
 전자화/자동화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서비스
 민자위탁관리운영
 야간개관



슈난시립 도쿠야마역전 도서관 2018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시설의 복합화
 역세권 입지
전자화/자동화 ✓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서비스
 민자위탁관리운영
 야간개관



히로사키역 개찰구



교토부립도서관 2018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시설의 복합화
 역세권 입지
 전자화/자동화
다양한 디자인 ✓
 다양한 서비스
 민자위탁관리운영
 야간개관



민나노모리 기후 미디어코스모스 2015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시설의 복합화
 역세권 입지
 전자화/자동화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서비스 ✓
 민자위탁관리운영
 야간개관



타카조시 도서관 2016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시설의 복합화
 역세권 입지
 전자화/자동화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서비스
민자위탁관리운영 ✓
 야간개관

CCC Culture Convenience Club Co., Ltd.



타케오시, 에비나시립중앙, 타가쵸시립, 타카하시시, 슈난시립, 도쿠야마 역전, 노베 오카역전 복합시설 엔크로스

일본 공공도서관의 변천_2000년대

- ✓ 전자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소
- ✓ 이용자가 주부/어린이 중심에서 일반 성인이용 증가

개가형 공간의 충실
 시설의 복합화
 역세권 입지
 전자화/자동화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서비스
 민자위탁관리운영
야간개관 ✓

365Days
 年中無休
 8:00 ~ 21:00

최근 일본 공공도서관 사례

일본 공공도서관의 최근 동향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부교수 **윤동식**

yoonds@gmail.com

010-2988-0700

발표 3

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사례 및 고려사항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개관준비TF팀장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 리모델링

- 가재울도서관 사례 중심으로 -

박 영 애
의정부시 도서관개관준비TF팀장

□ 작지만 가치있는 공동체 문화 공간

가재울도서관은 의정부시 가능역 기능의 축소로 지역 주변 침체 현상의 장기화로 지역 발전 성장 동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의 무료급식소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공간과 가능역 주변 지역 슬럼화로 청소년들의 안전 상시 노출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하였으며,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에 따른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젠다가 필요하였다.

가재울도서관은 ‘작지만 가치 있는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으로 사업명을 정하고, 교육·문화·복지 기능 융합형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가능역 3번 출구 방면 철로 하부 공간에 조성되었다. 도서관 면적은 1,044.288㎡으로 1, 2층 복층 구조로 건립되었으며 건축비, 인테리어, 서가 제작 등 집기류를 포함한 예산은 총 19억이 소요되었다.

가재울도서관 조성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기관 및 복합문화공간 역할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교육·문화·복지 기능의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존감 고취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주민의 행복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1> 가재울도서관 개요

- 사업 기간 : 2016. 3. ~ 2017. 12.
- 개 관 일 : 2017. 12. 22
- 위 치 : 의정부시 평화로 633(가능역사 하부공간)
- 규 모 : 부지(실사용) 1,094㎡, 건축면적 964㎡(연면적: 1,908㎡)
- 총 사업비 : 19억원 (시비 14, 기타 5(특별조정교부금))
- 특성화 주제 : 여행(인문학)
- 기대 효과 :
 - 가능역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정주공간 기능의 강화로 지역 발전 기대
 - 이용 가치가 없는 철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 파급 효과
 - 최소 비용으로 교육·문화·복지가 결합된 공동체 문화공간 확충

□ 사업추진계획

I. 추진 배경

1. 가능동 지역사회 침체

- 가능역이 종착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통해 역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전철 1호선이 연장됨에 따라 가능역 기능이 축소되어 주변 상권 및 지역사회 침체가 장기화되어 되고 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함
- 가능역사 철로 하부에서 특정 계층(노숙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의 무료급식공간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이미지의 무료급식소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공간이 필요함

<표 2> 사랑의 119 한술나눔 행사 개요

「사랑의 119한술나눔」 행사	
○ 위	치 : 가능역사 3번 출구 방면(하부 공간)
○ 규	모 : 648㎡(196평)
○ 주	관 : (사)119한술나눔(2009년 설립)
○ 운영방법	: 주 2회(월요일, 금요일), 배식시간 11:30 ~
○ 재	원 : 도비지원 50%, 자부담 50%
○ 이용현황	: 일일 평균 200여명

2. 교육 중심지, 저소득층 밀집, 문화 시설 전무

- 가능역사 주변인 가능동(1.2.3) 및 의정부동(1.2)에는 총 15개의 교육기관(초 3, 중 5, 고 7)이 밀집해 있는 교육 중심지이나, 지역 주변 슬럼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안전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가능역사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가능역사 주변 지역의 저렴한 거주비용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함
- 정서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과 교육·문화비용 지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거주지 가까운 지역에서 공동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절실함

3.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

- 지역 주민의 자존감 고취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애경력 개발을 위하여 가정-학교-지역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 기능의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이

* 전 생애(life-long) 또는 통 생애(life-wide)에 걸쳐 배우는 모든 학습(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취미 활동 등)

필요함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행복 구현을 위하여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 문화공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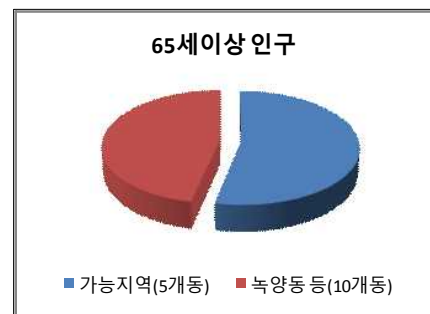
II. 지역 현황 및 특성

1. 가능지역의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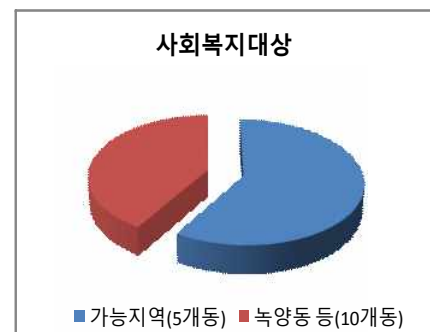
- 가능지역은 경기북부와 서울, 인천 및 수원까지 연결하는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으로 인해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난 한수이북 교통 요충지임
 - ➔ 그러나 전철 1호선이 소요산까지 연장됨에 따라 가능역이 종착역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요인이었던 정주공간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가능지역(가능1,2,3동/의정부1,2동)은 의정부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거주비용이 저렴하여 저소득층 거주자 비율이 높음
 - ➔ 의정부시 15개동 중 각 동의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복지수혜자가 가장 많아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실정임

<표 3> 의정부시 15개동 인구수 대비 비율 현황

구분	인구수(명)	인구수 대비 비율	
		65세이상	복지수혜자
가능1동	24,872	0.141	0.348
가능2동	9,529	0.141	0.325
가능3동	10,848	0.155	0.383
의정부1동	20,746	0.144	0.291
의정부2동	28,234	0.130	0.306
녹양동	23,586	0.108	0.240
송산1동	34,770	0.115	0.223
송산2동	50,767	0.093	0.206
신곡1동	44,874	0.114	0.195
신곡2동	47,737	0.100	0.199
의정부3동	13,761	0.156	0.311
자금동	30,654	0.119	0.209
장암동	21,305	0.142	0.371
호원1동	34,989	0.157	0.186
호원2동	37,681	0.138	0.165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비율



[그림 2] 사회복지대상 비율

<표 4> 가능 지역 현황 2016.2월 기준

구 분	세대수	인구수	저소득가구	사회복지대상수	65세이상
가능1동	11,277	24,872	5,216	8,649	3,509
가능2동	4,344	9,529	1,839	3,094	1,340
가능3동	4,870	10,848	2,505	4,157	1,683
의정부1동	10,887	20,746	3,907	6,045	2,980
의정부2동	13,420	28,234	5,204	8,652	3,674

2. 가능지역의 특성

- 저소득층 대상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가능역사 철로 하부공간에서 무료급식소(2009년~현재)를 정기적(주 2회)으로 운영하고 있음
 - ➔ 특정 계층(노숙인, 어르신 등) 대상의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인해 가능역 지역 주변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의 무료급식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능역 주변에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7개교 및 중학교 5개교 등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15개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밀집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 가능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머물 수 있는 공공 문화시설이 전무하여 타 지역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주 공간 기능에 필요한 기본 시설 부족으로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Ⅲ. 기본 구상

1. 지역발전을 위한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

「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

평생학습기관 및 복합문화공간 역할과 함께 저소득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등 복지 기능을 담은 교육·문화·복지 기능의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공공 문화시설이 전무한 가능 지역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 발전 도모
 - ➔ 주변 공공시설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물
 - ➔ 의정부시 공공도서관 인프라 절대 부족

* 가재울 : 가능동의 옛이름

<표 5> 의정부시 인구 대비 도서관 현황

도서관 수		1개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공공도서관 연면적		시민 1,000명당 공공도서관 연면적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평균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평균	의정부시
216	4	56,416	108,416	769,787	24,020	61	55

(단위:개관, 명, m²/2015.12)

-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침체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안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역할 담당
 - ➔ 연령별, 계층별 독서동아리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기초능력과 기술 활용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 ➔ 전 국민 대비 취약계층(장애인,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 평균값이 2배로 나타남(2005~2014)
-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의 디지털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독서생활의 활성화로 지식문화 및 평생학습문화가 촉진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
 - ➔ 공공도서관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공간 제공 및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가능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

- 가능역은 경기북부 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유동인구가 많음. 가능역 철로 하부를 활용한 정주 기능의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은 가능역 주변 상권 및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 제공
- 가능 지역(5개동)은 65세 이상 인구가 의정부시 전체(15개동)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경제활동 연령이 연장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년 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담당

3.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이용가치 발생

-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도서, 신문, 잡지, 디지털 자료 등)의 무료 이용에 따라 가능지역 1가구당 평균 97,500원의 경제적 혜택을 통한 지출 절약

☞ **도서구입 비용 절약 산출근거(2015년 기준)**

1. 가능지역(5개동) 세대수 : 44,636
2. 가능지역(5개동) 세대 당 평균 인구수 : 2.5명
3. 연간 도서 이용 권수 : 1,117,466권
4. 시민 1인당 도서 이용 권수 : 2.6권 (인구수 : 433,937명)
5. 시민 1인당 도서구입 지출 비용 : 2.6권 × 15,000원(1권당 평균 가격) = 39,000원
6. 가능지역 세대 당 평균 도서 이용 권수 : 2.5명 × 2.6권 = 6.5권
7. 세대 당 평균 도서구입 지출 비용 : 6.5권 × 15,000원(1권당 평균 가격) = 97,500원
8. 가능지역(5개동) 전체 세대의 도서구입 지출 비용 : 4,352,010천원

-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령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가능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연간 126,244천원 발생

☞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이용가치 산출근거(2015년 기준)**

1. 가능지역(5개동) 세대수 및 인구수 : 44,636세대 / 94,142명
2. 1 강좌당 평균 수강 금액(주민자치센터) : 30,000원
3. 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 : 19,400명
4. 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출 비용 : 582,000천원(30,000원 × 19,400명)
5. 시민 1인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출 비용 : 1,341원(인구수 : 433,937명)
6. 가능지역(5개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 : 126,244천원

IV. 사업 목표

1. 주요실적목표

- 가능 지역(5개동)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률 증가

<표 6> 가능 지역 인구수 대비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률

가능 지역(5개동) / 2016.3월 기준			인구수 대비 회원 가입률		
인구수	회원 수	인구수 대비 가입률	2017년	2018년	2019년
94,142명	1,679명	1.78%	5%(4,707명)	10%(9,414명)	20%(18,828명)

- 지역주민 1인당 연간 평균 도서 이용 증가

<표 7> 가능 지역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도서 이용 권수

가능 지역(5개동) / 2015년 기준			연간 1인당 평균 도서 이용 권수		
인구수	도서 이용 권수	연간 1인당 평균 도서 이용 권수	2017년	2018년	2019년
94,142명	43,139권	0.46권	0.7권(65,899)	0.8권(75,314)	1권(94,142)

2. 성과목표

-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 ☞ 운영인력 10명 : 정규직 - 5명 / 보조인력 - 5명
- 공공도서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발생으로 지역사회 발전

<표 8> 3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도서 이용 지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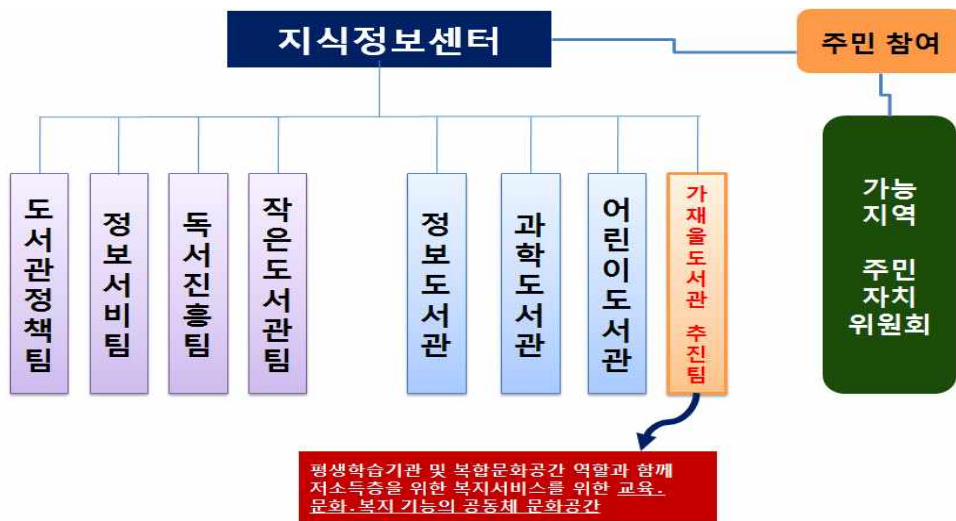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2019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도서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도서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도서 이용
6,312	988,485	12,624	1,129,710	25,248	1,412,130

(단위:천원)

- ☞ 평생교육 프로그램 : 회원 수 × 시민1인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출비용(1,341원)
- ☞ 도서이용 : 도서 이용 권수 × 도서 1권당 평균 금액(15,000원)

V.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조직체계



[그림 3] 사업추진 조직체계

2. 참여 주체별 역할

- 지식정보센터(가재울도서관 추진팀)
 - ☞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가재울도서관 운영
- 가능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 ☞ 주민참여 공동체 구성, 가재울 도서관 운영 참여 등

VI. 사업성과

- 슬럼화되어 있는 가능역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정주 공간 기능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
- 이용가치가 없는 철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최초 사례로 최소 비용의 교육·문화·복지가 융합된 작지만 가치 있는 공동체 문화공간이 확충됨
-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2층 구조의 계획을 통해 지자체 단위 공동보존서고가 만들어짐

VII. 참고자료

1. 현장사진



[그림 4] 가능역 철로 하부 공간



[그림 5] 무료급식 공간

2.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투시도



[그림 6] 가재울 공동체 문화공간 투시도

- 도서관 이용자 공간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 이용자 공간의 변화를 모색하다

발행일 2019년 03월 15일

발행처 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480
홈페이지 : <https://www.kla.kr/>

인쇄 삼성OA 02-538-5787

- 도서관 이용자 공간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 이용자 공간의 변화를 모색하다**